



투표용지 꼼꼼히 확인 6·13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4일 오전 광주시 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에 보낼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 광주·전남 6·13 지방선거 '중반 판세분석'

#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10곳 야권·무소속, '우위·접전'

민주, 목포·해남·신안·장성 '열세지역' ... 선거전략 수정  
평화, 목포·해남 '우위' ... 고흥·강진·동구 등 '경합우세'  
신안·장성·광양·보성, 전·현 단체장 출신 '무소속' 선전

6·13 지방선거가 중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당초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며 10여개 선거구에서 접전과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평화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각 정당은 선거전 막판까지 판을 뒤 흔들 수 있는 변수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혼전 또는 초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당력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

4일 현재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광주시·전남도당 관계자들과 무소속 후보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상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평화당과 무소속의 선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신안, 해남, 강진, 고흥, 보성, 광양, 장성 등 8개 선거구와 광주 동구·서구 등이 민평당과 무소속 후보의 우위 또는 접전지역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대체론을 통해 압승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선거전략 긴급 수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목포시와 해남군, 신안군, 장성군을 각각 열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광양시와 장흥군을 경합지역으로 보고 있다. 경합지역으

로 분류됐던 고흥군과 보성군, 강진군, 진도군 등은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선거지역을 위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박광운·이재정·이종걸·안민석·박주민 의원, 진선미 수석부대표, 김민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이 나서고 있다.

평화당의 경우 목포시장과 해남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전남 정치1번지 목포시장 선거는 평화당 박홍률 후보가 민주당 김종식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박지원 전 대표의 지역구인데다 평화당이 자존심을 걸고 사수를 장담하고 있다.

해남군수 선거에서도 평화당 혁명관 후보가 민주당 이길은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고흥·강진·진도·광주 동구 등을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평화당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박지원 전 대표를 모시기 위한 정탈전이 벌어졌다. 박 전 대표가 상주하면서 선거를 지원할 경우 승리지역이 1~2곳 추가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다.

이밖에도 조배숙 대표와 전정배·장병완·정동영 의원, 김경진 상임선

대위원장 등이 역할을 분담해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평화당은 이날부터 1박2일간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전남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이 지역에 대해 저인망식 찾아가는 유세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안에서는 박우량 전 군수와 현직인 고길호 군수 간에 무소속 혈전이 벌어지고 있다.

장성에서는 무소속 유두석 현 군수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에서는 무소속 정현복 후보가, 보성에서는 역시 무소속 하승완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광주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임우진 후보와의 선거연대 움직임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 동구청장과 광양시장·담양군수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의원 등이 집중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를 공천한 정의당은 이정미 당대표와 호남권 선대본부장이자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의원, 전남도당위원장인 윤소하 의원이 지원유세를 벌이며 유의미한 득표를 제고해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강병운 기자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 급물살

현대차, 빛그린산단 기반조성 현황조사  
광주시, 본사 방문해 투자규모 등 협상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투자의향을 밝힌 현대자동차 실무진이 현지를 방문해 실사에 돌입했고, 광주시 협상단도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차 실무단 9명은 이날 오전 광주 빛그린산단을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산단개발 현황과 완성차공장 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실사단은 주로 산단부지 중 공장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부지와 연결된 도로계획을 살피고 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본인프라 진척단계 등 연제출산단조성이 마무리될 것인지에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최대한 올해 하반기에 첫 삽을 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 빛그린산단은 전체 면적 407만1,000㎡ 규모로 조성 중이며, 1단계 264만4,000㎡ 가운데 현재 공정률은 65%다. <2면에 계속> /조기철 기자



## 제6회 신안천일염

# 전국대학생바둑대회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고 승단과 승급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 ▶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21일(토)
- ▶ 장소 : 신안군 비금 이세돌 바둑기념관
- ▶ 접수기간 : 2018년 5월 21일(월) ~ 6월 29일(금)
- ▶ 참가자격 : 전국대학재학생
- ▶ 참가부문 : 최강부(5단이상), 유단자부(1~4단), 고급부(1~3급), 중급부(3급이하)
- ▶ 접수 및 문의처 : 062) 652-2832, 010-3647-2833

## 북미, 판문점서 사흘연속 비핵화 점점찾기

핵무기 선반출·폐기 포함 정상회담 쟁점 논의

6·12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북미간 실무협상팀이 사흘 연속 판문점에서 만나 막판 의제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4일 오전 통일각에서 1시간 30분가량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과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간 뉴욕 고위급회담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에

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만큼 그 이후 진행되는 사흘 연속 회담에선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 김-최선희' 라인이 실질적인 의제조율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문점 실무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핵탄두 반출과 체제보장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선반출·폐기 문제도 이날 판문점 북미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북한이 통 큰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선 반출·폐기가 어렵다면 모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고·봉인 조치 등이 협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접견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전 '중전선인' 논의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개성사무소 개설 점검단 조만간 방북"

통일부 "북한 군수뇌부 동시교체했다면 이례적"

통일부는 4일 북한이 인민군 수뇌부 3인방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 "모두 한꺼번에 교체했다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정치국장이 김수길로 바뀐 것은 공식확인됐지만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은 (교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교체배경과 관련, 지난달 18일 북한이 보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거론했다.

백 대변인은 당시 북한은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의 해임 및 임명,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에 대한 해

임 및 임명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런 북한 나름의 입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의 방북일정과 관련, "사전점검단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필요한 공사나 개·보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볼 것"이라며 "그를 계기로 해서 아마 임시 공동연락사무소가 운용되도록 남북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